

## 찰스 피니의 부흥론과 법학\*

### The Revivalism of Charles Finney and Law

이동준 (Don John Lee)\*\*

#### ABSTRACT

Charles G. Finney was thoroughly methodological in developing his theory of revival. He did not ask what the essence of revival was. He did not discuss the revival neither dogmatically nor theologically. Rather, Finney's theory of revival was thoroughly pragmatic, practical, and methodological. He only talks about how to bring about a revival. He never discusses whether or why a revival is really necessary. He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it is natural for us to need revival. So the real question for him was then, how to promote revival.

Finney's experience as a lawyer played a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is pragmatic and methodological revival theory. Finney entered law in 1818. He passionately read law books. And as a lawyer, he took charge of the lawsuits of many clients, and he was thoroughly made into a methodological person for winning. He was a pragmatic person who lived only by pursuing the method of winning the lawsuit.

Then, when he started a new life as a revivalist, the habit and attitude of pursuing a method as a lawyer were still incorporated in his revival theory, eventually leading to a methodological revival theory. His 'legal mind' was reborn in his revival theology.

**Key Words:** Charles Finney, the 2nd Great Awakening, revivalism, law, revival method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2월 16일 최종수정, 12월 16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저자의 2018년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논문임.

\*\* 연세대학교(Yonsei University) 연합신학대학원 교회사 강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djlee34@naver.com

## I. 서론

18-19세기에 3회에 걸쳐 발생했던 미국의 대부흥운동(대각성운동)은 근대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흥미로운 몇 가지 주제 중의 하나다. 만약 우리가 부흥 운동 전반에 대한 고찰에서 탈피하여 그 범위를 약간 좁혀서, 주요 부흥사들의 부흥론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어떤 질서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를 ‘의문사’로 표현해 보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제1차 대부흥운동의 지도자는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였고, 제2차 대부흥운동의 주역은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 1792-1875)였으며, 제3차 대부흥운동의 리더는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 1837-1899)였다. 제1차 대부흥운동의 기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부흥론에서 부흥이 무엇(what)인지를 물으면서 부흥의 ‘본질’을 찾은 반면에, 제2차 대부흥운동의 주역 찰스 피니는 부흥을 어떻게(how) 일으킬 것인가를 물으면서 부흥의 ‘방법’을 구했다. 한편 제3차 대부흥운동의 리더 드와이트 무디는 부흥이 지금 이 미국 땅에 왜(why) 필요한가를 물으면서 부흥이 필요한 이유인 부흥의 ‘가치’를 발견하려 했다. 이렇듯 각 부흥의 주역들의 부흥론은 나름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렇듯 3회에 걸쳐 발생한 부흥 운동의 흐름을 하나의 잣대로 설명하기 위해 부흥의 주역들의 부흥론을 ‘의문사’라는 잣대로 표시하면,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부흥운동은 what(본질), > how(방법), > 그리고 why(가치)의 순서로 흐른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면 관계상 위에서 살핀 세 가지 부흥론 중에서 제2차 대부흥운동의 주역인 찰스 피니의 부흥론의 특징인 ‘방법’(how) 부흥론만을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찰스 피니가 그의 부흥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부흥의 ‘본질’이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부흥의 ‘방법’(how)을 추구하게 된 데에는 그의 과거의 법조인으로서의 삶의 경험이 작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제2차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그 후 피니라는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살핀 후에, 피니의 부흥론이 참으로 ‘방법’(how)의 부흥론이 맞는가를 그의 부흥론 교재를 낱낱이 살피면서 고찰하고, 그 후에 “과연 그의 법률가로서의 삶이 그의 ‘방법’(how) 부흥론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sup>1</sup>

제2차 대부흥운동의 주요 인물인 피니를 살피기 전에 간략하게 제1차와 제3차 대부흥운동의 주역들의 부흥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대부흥운동의 기수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흥론을 전개했었다. 즉, 참된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이에 답하고 있는 것이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이다. 부흥 중에 발생했던 광신적 현상을 보면서 에드워즈의 부흥에 대해 반대하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에드워즈는 자신의 부흥을

변호할 필요가 생겼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자신의 부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공격해오던 옛빛파에 대항하여, 자신의 부흥을 변호하려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참부흥이란 무엇이고 거짓 부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그렇게 부흥의 ‘본질’을 논한 것이 에드워즈의 부흥론이었다. 에드워즈의 부흥론을 의문사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what-부흥론’이었다.

또한 제3차 대부흥운동의 주역 드와이트 무디가 부흥사 무디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첫째, 남북전쟁의 비극적 현실과 둘째, 산업화와 도시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배어 있던 대도시 시카고의 비참한 뒷골목이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무디는 이 전쟁과 또 도시빈민의 고뇌에 찬 실존을 보고 겪으면서 인간의 실존, 즉 삶과 죽음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왜(why) 복음이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무디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면서, “‘왜’ 우리 인간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왜’ 이런 비극이 우리 미국을 삼키는가? ‘왜’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한가?”를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소망을 주는 복음의 ‘가치’를 뼈저리게 체득하게 되었다. 그는 부흥의 ‘가치’란 이러한 비극적 실존 앞에서 소망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무디의 부흥론을 의문사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why-부흥론’이었다.

그러나 피니의 부흥론은 철저하게 위의 두 사람과는 달랐다. 피니는 ‘본질’이나 ‘가치’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부흥을 촉진할 것인가를 묻고 이에 대해 답하는 부흥론을 전개했다. 피니의 부흥론을 의문사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how-부흥론’이었다.

1) “피니의 부흥론이 부흥의 ‘방법’(how)을 추구하게 된 데에는 그의 과거 법학적 훈련(legal training)이 영향을 끼쳤다”는 본 필자의 논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연구도 선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선행연구 자료들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그 어떤 선행연구와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를 밝히기가 어렵다. 그동안 (미국) 근현대부흥론의 대체적인 역사는 부흥론을 ‘신학’과 관련하여 분류하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첫째,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론은 칼뱅의 신학에 철저히 뿌리내린 청교도 부흥론이고, 둘째, 찰스 피니의 부흥론은 칼뱅 신학과는 다른 아르미니안 신학을 따르는 부흥론이며, 셋째, 디 엘 무디의 부흥론은 보수적 성격의 아르미니안 칼뱅주의 신학의 부흥론이고, 그리고 끝으로 빌리 그래함의 부흥론은 신복음주의 부흥신학에 기초한 부흥론이라고 보는 것도 그러한 분류 중의 하나이다(참고, 박용호, 2012: 22). 이러한 부흥론에 대한 역사 내지 구분은 ‘신학’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인데, 이들을 다시 정리하면, 이들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론은 ‘하나님 중심적’ 신학을 가진 부흥론이요, 나머지 부흥론은 모두 ‘인간 중심적’ 신학을 가진 부흥론이라는 분류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부흥론 중에서도 피니의 부흥론은 가장 원조 격의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가진 부흥론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논문은 그러한 ‘신학’적인 분류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자 시도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다만 피니의 부흥론의 현상에 대한 원인 중 하나가 그의 ‘법률가’적 경험과 정신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

## II. 제2차 대부흥운동과 찰스 피니의 교회사적 중요성

### 1. 제2차 대부흥운동 시기와 중심인물

제2차 대부흥운동은 약 1800년부터 1840년까지의 기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다(McLoughlin, 1955: 98). 제2차 대부흥운동은 지역적으로는 동부의 부흥과 서부의 부흥으로도 나눌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두 차례의 시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부흥운동 연구가이자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선교신학대학원(School of World Missions) 교수였던 제임스 에드윈 오르(James Edwin Orr)는 제1기를 18세기 말엽부터 1812년까지로 보고, 제2기는 1822년부터 1842년까지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제2기의 부흥운동의 주역이 바로 찰스 피니라고 본다(Orr, 1965: 54).

### 2. 찰스 피니의 교회사적 중요성 — 주요 교회사 학자들의 평가

미국 일리노이주의 롬바드(Lombard in Illinois)에 있는 노던 신학교(Northern Seminary)에서 기독교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찰스 햄브릭-스토우(Charles E. Hambrick-Stowe)는 그의 책 『찰스 피니와 미국 부흥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찰스 피니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찰스 피니는 미국의 많은 훌륭한 부흥설교자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라고 평가하였다(Hambrick-Stowe, 1996: 11). 이러한 평가는 결코 과장된 것이거나 잘못된 판단이 아니다.

또 다른 미국교회사 분야의 권위자 중의 한 사람인 마크 놀(Mark A. Noll)은 피니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피니는 부흥 전통에서 차지하는 그의 역할, 그리고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부흥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로 인해서,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이나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와 동등한 위치에서 있을 만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19세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Noll, 1992: 176). 찰스 피니는 19세기의 미국 기독교와 일반 사회생활 분야, 특히 사회개혁 부분에서 매우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라고 평가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한편 미국교회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 중의 하나가 예일 대학교의 시드니 알스트롬(Sidney E. Ahlstrom)이 쓴 『미국 사람들의 종교사』(*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일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찰스 피니는 현대 부흥주의의 아버지이다(the father of modern revivalism)라고 썼다(Ahlstrom, 1972: 459). 또한 알스트롬은, “피니는 어느 모로 보나, 모든 점에서 미국의 역사에서 엄청나게(immensely)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Ahlstrom,

1972: 459).

이어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서 미국 청교도 및 조나단 에드워즈 르네상스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는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피니에 대해 평가하기를, “피니는 부흥의 열망과 철학을 뛰어나게 성숙화시킨 사람이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 미국에서는 그 누구도 피니만큼의 주목을 받은 종교적 지도자는 없었다”고 말했다(Miller, 1965: 9).

계속해서 휘튼 대학교(Wheaton College)의 역사학 교수였고, 또 제4대 총장으로서 일했던 레이몬드 어드만(Victor Raymond Edman)은 “피니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성령의 불길을 선포하기 위해 광야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였다”고 피니를 평가했다(Edman, 1951: 18).

또 브라운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였던 윌리엄 맥로린(William G. McLoughlin)은 피니를 ‘현대 부흥주의(Modern Revivalism)의 창시자’로서 평가하고 있다(McLoughlin, 1959: 14). 피니는 그가 살았던 그 당시에 많은 대중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가 남긴 종교와 부흥의 영역에서의 유산은 실로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서대학교(Moody Bible Institute)의 교회사 교수였던 모이어(Elgin Sylvester Moyer)는 그의 책 『기독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라는 책에서, “피니가 약 30만 명에서 약 일백만 명에 달하는 불신자들을 회심시켰던 것으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고 적고 있다(Moyer, 1951: 458).

이렇듯, 피니는 교회사 및 미국의 문화사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커다란 인물임은 틀림없다.

### III. 찰스 그랜디슨 피니(Charles Grandison Finney, 1792~1875)

#### 1. 초기 생애와 법률가로의 입문

피니는 늦어도 1639년 이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앵글로·색슨 계통의 민족적 혈통을 지닌 사람의 후손이다. 피니의 할아버지 조시아(Joshia Finney)는 1756년에 자기가 살던 지역에 회중교회를 설립했던 것으로 보인다(Drummond, 1985: 33). 그의 아버지 실베스터(Sylvester Finney)는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의 어머니 레베카 라이스(Rebecca Rice)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다. 찰스 피니는 코네티컷주 리치필드 카운티(Litchfield County)의 워렌(Warren)이라는 곳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다. 그리고 1792년 8월 29일에 이 곳 워렌에서 이 집안의 일곱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나 두 살 때부터는 이사를 해

서 뉴욕으로 옮겨갔는데, 불타버린 지역(burned over district)으로 알려진 뉴욕의 중심부에서 자랐다. 그 지역은 ‘부흥의 불길’(revival fires)이 자주 타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

피니가 16세 때인 1808년에 피니의 가족은 뉴욕주 제퍼슨 카운티(Jefferson County)의 헨더슨(Henderson)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피니는 이곳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4년 동안 교사로서 일을 했다. 20세 때에는 원래의 고향인 코네티컷주의 워렌(Warren)으로 돌아와서 삼촌 집에서 일하는 한편,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앞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가 가고자 계획했던 대학은 예일 대학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예일에 진학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니가 그 당시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일 출신의 교사(preceptor)에게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다. 피니가 예일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 그의 회고록(*Memoris of Rev. Charles G. Finney*)을 보면, 그의 교사는 예일대를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피니 보고 예일대에 가지 말라고 조언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피니에게 말하기를, 예일에 가서 공부하고 졸업하려면 총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2년이면 그러한 공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을 예일에서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피니에게 말했다는 것이다(Finney, 1876: 5). 피니는 어쨌든 예일에 진학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 교사가 주는 과제를 받아서 공부했다. 예일에 진학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학비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1818년에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뉴욕주 제퍼슨 카운티의 아담스(Adams)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학생으로서 들어가서 Benjamin Wright라는 변호사로부터 도제식으로 법률 공부와 실무를 익힌 다음, 2년 후, 즉 1820년에 변호사 자격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피니는 그러한 법률업무에 종사하려는 계획을 갖고서 뉴욕 북부지역(upstate New York)으로 왔다(Dayton, 1976: 16).

피니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자신의 우월한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며 살아가는 젊은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니의 외손자이자 전기 작가인 윌리엄 코크란(William Cochran)에 의하면, 피니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그가 신체적으로도 크고, 그리고 지성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Cochran, 1908: 13). 피니는 교사와 변호사로서의 직업들을 갖고 있었다. 피니의 초기 인생에서 큰 영향을 준 것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과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약 3년 정도 활약하였다. 피니는 약 188cm의 키를 갖고 있었고, 약 83kg의 몸무게를 갖고 있었다. 또한 피니는 그의 교사 첫 월급으로 첼로를 구입했다(Miller, 유양숙 역, 1981: 8).

## 2. 회심과 부흥사 사역

그렇게 법률가로서 그러저럭 잘 진행하고 있던 차에, 피니는 자신이 보고 있는 법률 서적에 자주 등장하는 ‘모세오경’이라는 말을 보면서, 그러한 법률 서적들을 좀 더 잘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동기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약 2~3년에 걸친 기간 동안 꾸준히 성경을 탐독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피니는 영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심한 영적 갈등을 겪다가 마침내 그는 1821년 10월 10일, 회심하기에 이른다. 처음으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그 직후에 피니는 자기에게 소송을 의뢰하러 온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사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변호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건을 맡아서 당신을 위해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Deacon, I have a retainer from the Lord Jesus Christ to plead his cause and I cannot plead yours.)(Dayton, 배덕만 역, 2003: 47).

결국 피니는 스물아홉 살에 신학교육 과정을 비공식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조지 게일(George W. Gale) 목사 밑에서 개인적으로 신학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안수받았다. 즉, 장로교인이자 변호사였던 피니는 1821년에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후 신학을 연마하여 드디어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 특히 그는 처음에는 그가 변호사로서 일했던 뉴욕 북부지역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후 뉴욕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는 1825년 모호크 밸리(Mohawk Valley)에서 열정적으로 전도하였다. 피니는 부흥회에서 ‘새로운(회개의) 방법’(New Measures)을 도입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피니 부흥사는 인간적인 억지 수단을 사용한다”며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직면하게도 되었다(김영재, 2005: 642).

피니는 1830년대 초까지 뉴욕은 물론이고 보스턴과 더 나아가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1835년에 『부흥론』(*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을 썼는데 이 책은 그 후 125년이 지난 1960년에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 의해서 재출간되었다. 하버드 대학교는 이 책을 ‘미국 문화 형성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힘’이라고 평가하며 이 책의 재출간을 결정했다. 1830년대의 초반까지 피니는 여러 지역, 예를 들면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1835년에 새로이 건립되어 학기를 시작한 오하이오의 오벌린 대학교(Oberlin College)는 피니를 신학 교수로서 초빙하였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되어 학교의 설립자가 파산하게 되어 학교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피니의 저서가 많이 판매되어 그러한 재정적 힘으로 피니가 학교를 맡아서 일하게 되었다. 1851년에는 대학의 제2대 총장으로서 1866년까지 봉직하였다. 피니는 그의 생애의 나머지를 거의 이곳 오벌린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렀다. 피니는 1875년에 오벌린에서 사망하였다.

#### IV. 찰스 피니의 부흥론 - ‘방법론’(how)의 부흥론

피니의 부흥론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책 『부흥론』(*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책이다. 이 외에도 그의 『조직신학』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도 있으나, 역시 그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저술한 『부흥론』이 그의 부흥론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기도 충분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22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모든 목차를 하나씩 분석해 보면서 피니의 진정한 부흥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피니의 참된 부흥관 내지는 부흥신학을 완전하고도 정확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의 피니의 저작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책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니의 부흥론을 밝혀내 감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피니의 글을 분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피니의 부흥론 교재가 얼마나 문자적으로, ‘방법,’ 그리고 ‘수단’이라는 단어와 어휘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피니의 저작물 속에서 나오는 ‘어떻게’(how), ‘방법,’ ‘수단’들이라는 문자적 자료들을 추출해 냄으로써 그의 부흥론이 ‘어떻게’(how)라는 부흥의 방법론을 서술하는 일에 치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 § 1장 -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What a revival of religion is)

피니에 의하면 참된 기독교는 ‘사람’의 일이다(Finney, 1868: 9).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 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때에 이루시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부흥이다. 피니에 의하면 참된 기독교 부흥은 이적이 아니다(Finney, 1868: 12). 부흥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이적도 아니고 이적의 영역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부흥이란, 순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방법들을 잘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철학적 결과이다(Finney, 1868: 12). 피니에게 부흥이란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 소산임을 알 수 있다. 피니에게는 부흥이 이적이거나 기적이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땅의 결과물이다. 정해진 방법들을 잘 사용하면 그 원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부흥도 당연히 정해진 방법들을 잘 사용한 결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Finney, 1868: 13).

피니는 원인과 결과라는, 마치 자연과학에서의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어떠한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듯이, 부흥이란 일정한 법칙을 잘 알고만 있으면, 동일한 결과를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 활동이다.



### § 2장 - 부흥이 예상되는 시기를 아는 방법 (When a revival is to be expected)

어떻게 부흥이 예상되는 시기를 알 수 있을까? 피니에 의하면 신자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소망도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이것은 곧 부흥을 예상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한다. 즉, 곧 부흥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신자들이 겸손해지고 또 기도하기만 하면, 그들은 참된 기독교의 부흥을 통해서 두 손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곧 보게 될 것이다(Finney, 1868: 27). 어떻게 부흥이 오는가? 그것은 바로 신자들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온다. 신자들이 기도의 영을 소유할 때 온다. 특별히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목사의 마음이 부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때, 그리고 그 부흥에 분명한 목표를 두고 일할 때, 부흥은 온다.

### § 3장 -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How to promote a revival)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의 의미는 신자들의 마음 받을 기경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Finney, 1868: 35).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 받을 기경할 수 있는가?(How it is to be performed)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원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생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들 중의 한 면에 마음을 쏟는다면,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게 되는 것이다(Finney, 1868: 36). 즉, 피니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종함으로써 부흥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인위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가?(How is the fallow ground to be broken up)라는 항목에서 피니는,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함으로써 그 대상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피니는 여기서 심지어 심리학적인 분석과 성찰을 드러낸다.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심리적 상태를 잘 활용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피니이다.

### § 4장 -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 (Prevailing prayer)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에는, 꼭 필요한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에게서 영향력을 끼치는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영향력을 끼치는 수단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은 진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은 '기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신다(Finney,

1868: 48). 피니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기도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본다.

#### § 5장 - 믿음의 기도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 (The Prayer of Faith)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응답을 받는 방법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니가 보기에 믿음은 그저 예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즉, will not하기 때문에 can not인 것이다.

#### § 6장 - 기도의 영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 (Spirit of prayer)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How shall we get this influence of the Spirit of God?)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다. 기도의 목적이 나의 개인적인 이기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 § 7장 - 성령의 충만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요 ‘방법’이 된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외식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당신이 드리는 기도는 냉랭하고 성의가 없게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끝내는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 § 8장 - 기도회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 (Meetings for prayer)

기도회를 인도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기도 모임을 가질 때, 인도자가 그 모임의 목표나 개최 이유를 대변하기에 적절한 짧은 성경 구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그 구절을 선택해서 읽는 방식으로 그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Finney, 1868: 120).

기도회 시간 중에, 장시간의 침묵이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장시간의 침묵이 흐르면, 사람들이 잠냄을 갖게 된다. 또 기도회의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든다. 너무 장시간의 침묵은 분위기를 가라앉혀서 기도 모임의 분위기를 차갑고 활기 없게 만든다.

### § 9장 -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데 사용될 '수단' (Means to be used with sinners)

“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와 정반대의 뜻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불신자, 즉 어떤 죄인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죄인이며 큰 위협에 처해있다’고 말할 때, 당신의 그 말하는 태도가 당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피니는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에 있어서 단지 언어적 기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달자의 전달 태도를 방법상의 주요한 요소로 본다. 즉, 겸손하고도 진지한 태도의 방법과 수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 § 10장 - 영혼 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혜를 얻는 방법 (To win souls requires wisdom)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 논하려는 목표는, 영혼 구원이라는 한없이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방법’(means)을 신자들에게 가르치려는 데 있다(Finney, 1868: 149). 피니는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룬다. ①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죄인들을 다루는 ‘방법’(The manner of dealing with careless sinners). ② 죄를 각성한 죄인들을 다루는 ‘방법’(The manner of dealing with awakened sinners). ③ 죄를 깨닫는 죄인들을 다루는 ‘방법’(The manner of dealing with convicted sinners).

### § 11장 -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어 성공하는 방법 (A wise minister will be successful)

피니에게 있어서의 이 ‘지혜’(wisdom)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법,’ ‘수단’과도 같은 것이다. 이 지혜를 활용하고 써야 하듯이, ‘방법’과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어떻게’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수행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지혜, 즉 ‘방법’을 갖출 때 가능하다고 피니는 말한다. 목회자는 ‘어떻게’(how) 교회를 일깨우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Finney, 1868: 167).

### § 12장 - ‘어떻게’ 복음을 설교할 것인가? (How to Preach the Gospel)

피니에 의하면,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야 한다. 잘하려면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방법’을 잘 익혀 둘 필요가 있다. 부흥의 역사도 설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

§ 13장 - '어떻게' 교회가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가? (How churches can help ministers)

‘교회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을 계속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Finney, 1868: 213)이라는 소제목 하에, 피니는 목회자를 교회가 돕는 ‘방법’에 관해서 말한다. 피니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본다. 피니의 입장에서는, 부흥이란 목회자와 교회 전체의 협동적 사역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14장 - 부흥을 일으키는 몇 가지 ‘수단들’ (Measures to promote revivals)

피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흥회를 계획할 때, 교인들의 형편을 잘 고려해야 한다. 즉, 교회가 부흥 집회를 하기에 그때가 적기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Finney, 1868: 249). 가끔 부흥 집회가 일반 세상의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은 시기(business seasons)에 열려서, 교인들이 자신들의 세속적 사업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부흥회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Finney, 1868: 251). 일반적으로, 부흥회는 한 사람의 동일한 목회자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가끔 부흥회 기간에 날마다 다른 목사가 돌아가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때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러한 부흥회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부흥회를 진행할 때는, 교인 개개인의 자기 가정의 의무나, 개인기도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빈번하게 모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Finney, 1868: 251-252). 피니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시간적 환경이 허락할 때를 잘 고르라고 조언한다.

§ 15장 - 부흥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법 (Hindrances to revivals)

피니는 부흥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소해 보이고, 무시해도 좋아 보이는 미미한 사항들 때문에 부흥회가 방해받고, 그 결과 부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엄히 경고하고, 경계한다.

§ 16장 - 연합의 필요성과 효력 (Necessity and effect of union)

피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과 참된 영성을 촉진시키는 ‘노력’(effort to promote religion)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Finney, 1868: 294). 피니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 § 17장 - 죄인들을 위로하는 거짓 위안들 (False comforts for sinners)

피니는 계속해서 목회자는 어떻게 교인들을 다루고 상담하고 권면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상의 노하우(know-how)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피니에게 있어서, 부흥이란 목회자의 부흥 방법 숙달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 § 18장 - 죄인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방법 (Directions to sinners)

피니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리나 구호만을 외치는 것은 실제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죄인이 회개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이란, 다름이 아니고, 회심 대상자에게 회심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그 회심자는 자신의 마음과 이성 속에서, 그러한 즐거움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것에서 오는 회심에의 주저를 떨쳐버리고, 확고하게 회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다.

### § 19장 - 회심자들을 올바르게 교훈하는 ‘방법’ (Instructions to converts)

피니는 다음과 같이 제19장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 제18장은 죄인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주는 것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번 장에서는 이 강의의 연속으로서, 새로이 회심하게 된 사람들이 취급되어야 할 ‘방법’(manner)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또 그들에게 주어야 할 교훈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이번 제19장에서도 역시 피니는 ‘방법’(manner)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피니에게는 부흥이 ‘방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그 방법을 잘 활용해서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20장 -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전하는 주의사항 (Instruction of young converts)

피니는 여기서 ‘어떻게’(how) 새로운 회심자들이 교회에 의해서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말한다 (Finney, 1868: 402).

### § 21장 - 다시 타락의 자리로 되돌아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방법 (Backsliders in heart)

피니는 지금까지 이어온 일련의 강의를 거의 끝마침에 있어서, 다시 타락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논하면서 그는 동시에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how to)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한다(Finney, 1868: 412).

---

§ 22장 -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방법 (Growth in grace)

피니는 이 마지막 장인 제22장의 앞부분 제4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조건들’로서 13가지를 들고 있다. 그 핵심은 신자의 삶의 각 분야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피니의 책에서 살펴본 대로 그의 부흥론은 부흥의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V. 찰스 피니와 법학

### 1. 법학도 피니 - 법률 교과서의 영향

피니는 법률훈련을 받은 법률가였다. 당연히 그는 법률 교과서로 훈련받았다. 당대의 표준적 법률 교과서는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 1723-1780)이 저술한 책이었다(Weddle, 1985: 54-55). 블랙스톤은 영국의 법학자요, 판사요, 보수적 정당이었던 토리당에 속했던 정치가였다. 블랙스톤이 1753년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영국법 강의를 시작한 것이 영국법 교육의 시작이다. 블랙스톤이 남긴 『영국법 주해』(*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는 영미법에 관해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교재이다. 이 주해는 특히 바다 건너 미국의 법률가들에게 환영받아서, 비록 주해서이지만 마치 법전처럼 여겨질 정도의 권위와 인기를 누린 책이다. 미국의 영국법 교수는 블랙스톤에 의하는 바가 컸고, 연방 헌법 및 각 주의 헌법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Miles, Dagley, & Yau, 2000: 46, 56-58).

피니가 살았고 활동했던 19세기의 미국에서 법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19세기 미국은 이제 막 새로이 건설된 신생국가로서, 서부로 그리고 또 서부로 계속해서 팽창하던 서부 개척의 시기였다. 일반적으로 개척자들은 거칠다. 그러나 그러한 개척 시대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정착 시대가 오게 된다. 정착자들은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욕망을 제어하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률을 만들어야 했다. ‘개척자’들에게는 법률이 거주장스러운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정착자’들에게는 법률이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정착자들은 법률의 중요성을 잘 인식했고 법률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페리 밀러가 19세기의 미국을 지배했던 정신, 즉 법률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블랙스톤은 영국 법률 시스템에서 뉴턴이 물리학의 세계에서 행한 것만큼 그렇게 큰일을 했다(Weddle, 1985, 8). 블랙스톤이라는 이름은 미국 독립(1776년) 후의 약 1세기 동안 거의 모든 미국의 법률 교과서에 편재해(ubiquitous) 있었다(Weddle,

1985: 55).

자연스럽게 피니는 법률 공부할 때 블랙스톤의 교재를 사용하여 공부했다. 그래서 당연히 피니가 법률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바로 당시의 법률 교과서를 집필했던 윌리엄 블랙스톤이었다. 실로 영국 사람 블랙스톤이 저술한 법학 교과서 『영국법 주해』는 1775년경에는 영국보다도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은 출판부 수가 인쇄되고 판매되었다(Miller, 1965: 115).

피니가 받았던 법률가 양성 과정이란, 대체로 도제(apprentice)식의 교육으로서, 이것은 학구적으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단순히 기존의 판사나 변호사의 지도로 약 2년 내지는 3년간의 실습, 즉 어깨 너머로, 법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소송을 보면서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이었다(Weddle, 1985: 51). 피니 당시의 법률가가 되기 위한 도제 시스템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달리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단 하나의 표준, 즉 블랙스톤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쳐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을 말한다(Miller, 1965: 158).

법률가로서의 피니에 대한 책, 『복음으로서의 법』(*The Law as Gospel*)을 출판했던 데이비드 웨들은, 피니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칼뱅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시각을 가졌었다기보다는, 법률가인 휴고 그로티우스나 ‘블랙스톤’의 렌즈를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집중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Weddle, 1985: 101)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웨들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피니가 저술한 글들과 블랙스톤의 글들 사이에는 그 사상과 용어가 유사한 점이 분명하고 또한 수없이 많다(Weddle, 1985: 46).

블랙스톤의 주요한 사상은 바로 이것이다. 즉, “인간에게는 법률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로, 인간은 자신의 이성(reason)을 통해서 법률의 요구를 ‘이해’하는(understand) 것이 ‘가능하기’(can) 때문이다(Through reason, they ‘CAN’ understand the requirements of law.). 또한 둘째로, 인간에게는 그 자신의 의지(will)를 통해서 법률의 요구를 ‘이행’하는(observe) 것이 ‘가능하기’(can) 때문이다(With their will, they ‘CAN’ obey it.)(Knight, 2014: 82).

이러한 “인간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can)”는 사상은 피니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그는 언제나 법률가였다. 그가 부흥사로 있을 때도 그는 언제나 법률가였다. 즉, “인간은 할 수 있다(can)”는 것이 그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할 수 있다(can)’는 사상에서 논리적으로 그다음 순서로 따라 나오는 것은 바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how) 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피니는 철저하게 블랙스톤의 이러한 ‘할 수 있다(can)’는 총론적인 법철학적 사고에 이끌렸고, 여기서 그의 각론, 즉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how)이라는 것을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었다. ‘할 수 있다(can)’는 총론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how)’라는 각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피니에게 부흥은 인간이 방법만 잘 사용하면 일으킬 수 있는 것이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요,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피니는 부흥의 그 구체적 발생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듯 피니의 부흥론은 ‘기술’(technique)이요 ‘방법’이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피니가 판단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can not’(예정론에 의하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will not’(스스로 택하여 믿음을 갖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들이, 또 부흥사들이 그들 회중을 돌이켜서 그들의 마음을 믿는 쪽으로 향하게 한다면, 즉 ‘will not’하는 사람들을 ‘will’하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피니가 복음을 법률적으로 이해한 것은 외형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내면적으로도 피니는 복음을 법률적으로 이해했다. 피니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따라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죄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런 피니에게 전통적인 칼뱅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추상적인 신학은 별로 쓸모가 없었다. 피니의 법률 정신에서 보기에, 인간이 자신의 결단으로 지은 죄가 아닌 원죄(original sin)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것이다. 인간은 단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한다.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전혀 없는 것이어서, 인간은 오로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인간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처럼 피니의 신학은 철저하게 법률적 신학이었다. 피니가 공부한 형법에서 범죄성립요건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끝으로 ‘책임’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피니는 그의 부흥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나, 신학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그의 법학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법학과 함께 부흥사의 길을 갔다.

## 2. 변호사 피니 - ‘어떻게’(how) 승소할 것인가?

피니는 자신이 변호사란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의뢰한 소송 사건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승소하는 것만이 그의 제일 관심사이다. 변호사는 육하원칙 중에서 오로지, ‘어떻게(how)’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묻고 또 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소송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what)’인지를 묻지 않



는다. 또 ‘왜(why)’ 범법자가 기소당해야 하는가를 묻지도 않는다. 오로지 변호사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의뢰받은 이 소송에서 이겨서 의뢰인을 기쁘게 해 줄 수 있을까를 계속 궁리하는 것이 그 본분이요, 본업이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고객에게 끼친 기쁨에 대한 대가로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즉 소송 의뢰비, 착수금 내지는 성공보수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 본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생애 전반(全般)에 항상 그러한 법률가라는 직업적 정신을 지니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피니였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장이었고 법률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evidence)에 관한 전문가였던 존 헨리 위그모어(John Henry Wigmore)는 전문증거배제원칙에 대해 말하기를, 배심원 재판 다음으로 미국 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아직도 존중되는 원칙이자 전 세계 실용법 체계 절차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된다(Strong, ed. 1999: 372)라고 했다. 전문(傳聞)증거란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해 들은 증거를 말한다(Goldstein, 김경호 역, 2008: 51). 전문을 인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을 보거나 들은 증인을 상대방이 대면하고 대질 신문할 기회를 박탈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증거를 배제해 버리면 진실을 밝히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Goldstein, 김경호 역, 2008: 51).

이 전문증거배제원칙은 미국에서 존중되는 당사자주의(adversarial system; 법정에서 반대 견해의 변호사가 그들 각각의 관점 또는 고객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나 논쟁을 제시하는 과정)의 하나로써, 진실 전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슈의 진실만을 밝히는 것이다. 사실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진실은 편협하거나 변호사의 편익에만 부합되어 선별된 진실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Goldstein, 김경호 역, 2008: 51). 당사자주의는 양측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대결이었던 초기 재판 시스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니가 법률가로서 생활하던 시절에도 당연히 그러한 기법과 철학은 통용되고 있었다. 이는 정의에 도달하는 최고의 방법은 잘 정비된 법정 절차에 따라 양측 변호사가 싸우면서 가능하다는 이론에 근거한 시스템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증거발견원칙의 동등한 기회를 가지려고, 변호사들은 증거수집에 있어서 반드시 서로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고 피고 측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에서 피고 측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의 증언을 믿지 않도록 배심원을 설득하는 것이다(Goldstein, 김경호 역, 2008: 51). 그리고 그것은 존 헨리 위그모어가 ‘지금까지 발명된 진실 발견을 위한 최고의 법률 장치’(Gillers, 2004: 2)라고 부르는 대질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사자주의는 UCLA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인 마이클 아시모(Michael Asimow) 교수의 말처럼, 법정에서 양측 변호사의 설득 기술과 경험, 정보원이 최소한 어느 정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Asimow, 2006: 4). 따라서 아시모 교수는, 당사자주의 모델에서 변호사가 배심원들이 ‘진실’을 찾도록 돕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에만’ 부합되게 행동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배심원단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덕망 있는 변호사보다는 ‘기술’(방법, how) 있는 변호사가 승소하는 것이 재판의 현실이다. 변호사의 역할은 정의를 찾거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전부이다(Asimow, 2006: 5). ‘기술,’ ‘방법,’ 그리고 ‘수단’이야말로 변호사가 직업상 숙달해야 할 영역들이다. 이렇듯,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 즉, ‘무엇’(what)의 파악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how)하여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그 직업적 속성이다.

피니는 변호사였다. 그는 의뢰인을 위해서 소송에서 이길 ‘방법’(how)만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피니는 자신의 고객을 위해 ‘어떻게’(how)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직업에 익숙해져 있었다. 피니에게는 이것이 그의 부흥론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나타났다.

### 3. 법률가 출신 부흥사

피니는 부흥사가 된 이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동안 내려오던 전통적인 기독교 스타일의 부흥회 인도 방식을 택하지 않고, 법률가적 ‘방법’을 부흥회에 적용했다.

#### 1) 어투

피니는 일반적인 죄인들을 언급할 때, ‘그들’이라고 삼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법정에서 피고나 원고를 부를 때 쓰는 용어를 사용하여, 회중들을 쳐다보면서 ‘당신’이라고 불렀고, 이러한 행위는 청중들을 당황하게 했다. 또 대중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죄인은 그 죄인의 이름을 직접 불렀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설교자는 설교단에서 조심스럽게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피니는 과감하게, 또는 도발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특정하여 불렀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추상적으로 조심스럽게 또는 애매하게 당사자를 지적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정확하게 피고나 원고 또는 그외에 소송과 관련된 사람들을 특정하여 분명하게 호명하거나 지적한다.

#### 2) 직선적 태도와 능숙한 언변

피니는 법률가 특유의 직선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부흥회를 인도했다(Duewel, 안보현 역, 1996: 109). 피니는 항상 사람들에게 직선적으로 말했다. 변호사인 그는 즉석에서 유리한 판정을 확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건을 변호하듯이 설교했다(Duewel, 안보현 역, 1996: 113). 실제로

남은 평생 그가 선포한 설교형식 속에는 그의 법률가다운 흔적이 배어 있으며,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거둔 성공은 상당 부분 변호사로서 터득한, 막힘없이 나오는 언변, 그리고 직접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토론 기술에 기인한 것이었다(Hardman, 1994: 148-149).

### 3) 원고 없는 설교

피니는 원고설교를 절대적으로 반대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정에서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원고를 읽어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형사 법정에서는 눈과 눈을 마주치며 피고나 배심원이나 참고인, 피의자, 청중 혹은 검사의 눈을 쳐다보면서 간절하고 진지하게 말한다. 물론 메모를 참고하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간간히 메모를 참고해서 말하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사의 원고설교처럼 변론 내내 원고를 보면서 지루하게 읽어 내려가지는 않는다. 피니는 설교자가 원고를 보면서 진행하는 설교를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로 기록된 것에 의존하는 설교는 설교자의 자연스러운 사과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순간순간 갖게 되는 진정한 감정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설교자의 신체 동작과 몸짓의 사용을 방해하기 때문이었다. 예전의 지루하고 경직된 원고설교형식에 익숙해져 있던 회중들에게는, 피니가 설교할 때 회중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새로운 ‘법정에서의 방식’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Hardman, 1994: 149).

### 4) 쉬운 어휘와 설득하는 자세

피니는 말하기를, 설교자들은 청중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단에서 너무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일상에서 쓰는 회화를 사용해야 하고, 변호사처럼 설득하려는 자세로 설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교에서 대중적인 구어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개 목사들은 설교단에서 어려운 신학적 용어나 성경의 원어들을 사용하면서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변론은 피고나 원고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더더욱 일반 시민들이 모인 그룹인 배심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피니는 어휘나 용어를 일상적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교가 일방적인 선포로 끝나지 않아야 함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었다. 변호사는 판사와 배심원을 설득해야 한다. 설교도 마찬가지다. 피니는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을 설득하려는 자세로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니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설교가 되어야 원하는 결과 즉 회심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 5) 변호사의 수사학과 배우를 본받아라

피니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 변호사와 배우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들처럼 역동적으로, 또 잘 준비하여 설교할 것을 주문했다. 소설이나 극작가가 쓴 극본 혹은 대본의 ‘살아 있는 실체’로서 청중들에게 그 원 작가의 정신과 의미를 표현해주는 것이 연극배우들의 할 일이다. 부흥회 설교자들도 그와 똑같이, 성경의 원 작가이신 하나님의 뜻의 ‘살아있는 실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회중들에게 전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피니는 주장했다. 그래서 부흥회 설교자들은 배우들 또는 수사적 기법으로 무장한 변호사를 모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피니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그의 설교 방식은 힘이 있었고, ‘변호사’의 논리를 검비하고 있었다(Dayton, 1976: 16).

### 6) 보상과 배상

신자들은 회개했다는 증거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실제적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피니는 강조했다. 그 결과로 피니의 부흥 집회 기간에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회심자들의 입으로 자백 되었고, 실로 엄청난 액수의 돈이 실제로 변상 되는 데 쓰였다. 이러한 것들이 피니의 부흥론의 실제였다. 법률적 다툼에서 그저 마음만으로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피니에게 익숙했던 법정에서의 장면인 재산상의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법률적 실천이 교회당의 부흥회로 넘어온 것이다.

### 7) 설교 중에 질문하기

피니는 부흥회에서 설교할 때 설교단 가까이 앉은 사람들에게 종종 질문을 하면서 설교했다. 질문을 받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체 회중들도 일단 질문이 있으면 긴장하게 되고 분위기가 더 진지해질 수 있었다. 피니가 설교 중에 특정한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가 마치 개인적으로 나 개인에게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설교 방법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이었다. 그동안 높은 설교단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만 했던 전통을, 피니는 새로운 방법을 써서 바꾸었다. 피니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나 검사, 혹은 변호사가 증인을 비롯한 여러 소송 관계인들에게 질문하거나 신문하는 법정의 풍경을 부흥회로 가져와서 사용했던 것이다.

### 8) Altar Call(제단 초청)

피니는 부흥회 예배 순서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영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강단 앞으로 초청하고 결단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을 altar call이라 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표출하게 하는 요청이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빌리 그래함의 부흥회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 altar call인데, 이 altar call을 대중화시킨 원조가 바로 피니였다. 법정에서는 맨 앞쪽에 판사가 자리 잡고 있다. 피고와 원고, 변호사, 검사, 그리고 배심원들이 모두 법정의 맨 앞에 앉아있는 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까이 위치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간다. 이 순서에 담긴 철학은 법정에서 판사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밝히듯, 여기 부흥회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자신의 헌신하려는 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 VI. 결론

피니로 하여금 부흥에서 ‘방법’(how)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영향을 끼친 요인이 오로지 변호사로서의 경험이라는 법률적 요인만은 아닐 것이다. 법과 더불어 신학적인 요인도 있다. 피니는 장로교 목사로 안수받았다. 장로교는 칼뱅의 사상을 따른다. 그런데 피니는 신학적으로는 원래의 칼뱅주의에서 후퇴한 아르미니안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다. 칼뱅의 신학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대해서 인간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것에 대해서 인간은 결코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뱅주의에 의하면 부흥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즉 그분의 예정에 의해서 인간에게 부흥이 주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에 반해서 아르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강조한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예정)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따라서 아르미니안적인 신학에서는 부흥이 인간의 의지를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된다. 즉, 부흥이란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다. 피니가 아르미니안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방법-부흥론’의 산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지면 관계상, 신학적인 요인 아르미니안주의가 피니의 ‘방법-부흥론’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법률적인 요인이 ‘방법-부흥론’에 끼친 영향만을 살펴보았다.

피니의 이러한 방법-부흥론에 대해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먼저 피니의 이러한 방식은 전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는 비판이 따랐다. 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르미니안주의를 따르지 않고 칼뱅주의적 신학을 따르는 청교도 전통을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피니

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았다. 또 피니가 취했던 새로운 방법(New Measures)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여자가 대중 앞에 증언(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마을의 모든 집을 방문할 심방 그룹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연장 집회’(몇 주일 동안 매일 밤 열리는 장기 집회)로 정규예배를 대체하는 것 등이 비판받았다.

피니의 이 ‘방법-부흥론’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자체의 소중함보다,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나 크기를 가장 큰 덕목이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쩌면 어떤 한 개인의 소중한 회심 자체보다도 그러한 회심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효율성에만 강조점을 두고 평가하는 위험성을 가진 부흥론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피니는 법률가로 있다가 회심하게 되었다. 그때, 피니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은 자신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Wessel, 양낙홍 역, 1984: 27). 피니는 정말로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직업이 좋았다. 이 말은 피니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에 익숙하고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피니는 그동안 법률가로서의 일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왔으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법률가로서의 일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면, 자신은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고 고백했다(Wessel, 양낙홍 역, 1984: 27). 그 정도로 피니는 법학도로서,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의 자기 일에 익숙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피니는 싸우는 방법에 익숙한 싸움의 고수였다.

이러한 과거 법률가로서의 피니는 현재 신학에 넘어와서도 그 법률가적 실용성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 잃어버린 법률가로서의 자리를 부흥사의 강단에서 찾으려 했다. 피니는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법률가로서의 직업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법률가적 태도, 즉 legal mind는 버릴 수 없었고, 이것을 보이지 않게 더 강하게 무장했다. 피니는 자신에게 소송에 대한 의뢰가 쇠도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피니는 회심 후 한결같이 그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사실 피니는 그 소송의 다툼을 처리하는 장소를 바꾼 것뿐이었다. 세속법정에서 예배당으로 전투지를 바꾸었던 것이다.

피니는 변호사로서, 그의 직업은 이 새로 태어난 젊은 사회인 미국이 혼란과 소외에서 벗어나 질서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한 역할에 대한 사명이, 첫째, 그의 목회를, 복음을 변호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둘째, 그의 부흥회를, 법정에서의 기술(courtroom techniques)을 적용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셋째 그의 신학을,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

해설(exposition)하는 것으로 만들었다(Weddle, 1985: 102).

피니는 회심 이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변호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서 피니가 배우고 익힌 법률적 사고와 방법론은 매우 유익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그의 설교 내용과 형식,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에서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성향을 찾아볼 수 있다(김대진, 2016: 150-155). 피니는 겉으로는 부흥사의 옷을 입고 나타났지만, 속으로는 법률가의 몸을 계속 갖고 있었다. 피니는 부흥사의 옷을 입은 변호사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 참고 문헌

- 김경호 역 (2008). **언론과 진실-이상한 동거**. Goldstein, T. (2007). *Journalism and Truth, Strange Bedfellows*.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Kim, K. H. (2008). *Journalism and Truth, Strange Bedfellows*. Seoul: Communication Books. Trans. Goldstein, T. (2007). *Journalism and Truth, Strange Bedfellows*. Evanston, USA: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김대진 (2016). **부흥, 찰스 피니에게 듣다**. 용인: 도서출판 목양.
- [Kim, D. J. (2016). *Revival, From Charles Finney*. Yongin: Mokyang Publishing]
- 김영재 (2005). **기독교 교회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 [Kim, Y. J. (2005). *A History of the Church*. Suwon: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Press]
- 박용호 (2012). **미국교회 부흥신학**. 서울: CLC.
- [Park, Y. H. (2012). *Revival Theology in America*. Seoul: CLC]
- 배덕만 역 (2003). **다시 보는 복음주의의 유산**. Dayton, D. W. (1976).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서울: 요단출판사.
- [Bae, D. M. (2003).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Seoul: Jordan Publishing. Trans. Dayton, D. W. (1976).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Peabody, USA: Hendricson Publishers]
- 안보현 역 (1996). **부흥의 불길**. Duewel, W. L. (1995). *Revival Fire*. 서울: 생명의말씀사.
- [Ahn, B. H. (1996). *Revival Fire*. Seoul: Word of Life Press. Trans. Duewel, W. L. (1995) *Revival Fire*. Grand Rapids, USA: Zondervan Publishing]
- 양낙홍 역 (1984). **찰스 피니의 자서전**. Wessel, H. (편저) (1977).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G. Finney*. 서울: 생명의말씀사.
- [Yang, N. H. (1984).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Finney*. Seoul: Word of Life Press. Trans. Wessel, H. (Ed.). (1977).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Finney*.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Inc.
- 유양숙 역 (1981). **찰스 피니의 생애**. Miller, B. (1969). *Charles Finney*. 서울: 생명의말씀사.
- [You, Y. S. (1981). *The Life of Charles Finney*. Seoul: The Word of Life Press. Trans. Miller, B. (1969). *Charles Finney*. Bloomington, USA: Bethany House]
- Ahlstrom, S. E. (1972). *A Religious History of American People*.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Asimow, M. (2006). "Popular Culture and the American Adversarial Ideology." Paper prepared



- 
- for symposium, "How Popular Culture Teaches Americans about the Civil Justice System." Loyola School of Law.
- Cochran, W. C. (1908). *Charles Grandison Finney*.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 Dayton, D. W. (1976).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Drummond, L. A. (1985). *The Life and Ministry of Charles G. Finney*.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 Edman, V. R. (1951). *Finney Lives On*. Wheaton, Illinois: Scripture Press.
- Finney, C. G. (1868). *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 Finney, C. G. (1876). *Memoirs of Rev. Charles G. Finney*. New York: A. S. Barnes & Company.
- Gillers, S. (2004). "On Knowing the Basic Rules of Advocacy." *New York Times*, February 8, 2004. "Week in Review."
- Hambrick-Stowe, C. E. (1996). *Charles G. Finney and the Spirit of American Evangelicalism*.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 Hardman, K. J. (1994). *Seasons of Refreshing*.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Knight, H. H. (2014). *Anticipating Heaven Below*. Eugene, OR: An Imprint of Wipf and Stock Publishers.
- McLoughlin, Jr. W. G. (1955). *Billy Sunday Was His Real Nam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es, A. S., Dagley, D. L. & Yau, C. H. (2000). Blackstone and His American Legacy. *Australia & New Zealand Journal of Law and Education*, 5(2), 46-59.
- Miller, P. (1965). *The Life of the Mind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Civil War: Books One through Thre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Moyer, E. S. (1951). *Great Leaders of the Christian Church*. Chicago: Moody Press.
- Noll, M. A. (1985). Common Sense Traditions and American Evangelical Thought. *American Quarterly*, 37(2), 216-238.
- Orr, J. E. (1965). *The Light of the Nations: Evangelical Renewal and Adva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Eugene, Oregon: Wipf & Stock Publishers.
- Strong, J. ed. (1999). *McCormick on Evidence*, (5th ed.), St. Paul, MN: West.
- Weddle, D. L. (1985). *The Law as Gospel*. Metuchen, NJ: The Scarecrow Press, Inc.

## 찰스 피니의 부흥론과 법학

### The Revivalism of Charles Finney and Law

이동준 (연세대학교)

#### 논문초록

찰스 피니는 그의 부흥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방법론적이었다. 그는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다. 그는 부흥에 대해 교의학이나 교리신학적으로 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니의 부흥론은 철저하게 실용적이지요, 실제적이지요, 그리고 방법론적이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한다. 그는 부흥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또는 왜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전제로 시작한다. 그래서 그에게 문제는 어떻게 하면 부흥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가 참 문제였다.

피니가 이러한 실용적이고 방법론적인 부흥론을 갖게 된 배경에는 그의 법률가로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피니는 1818년에 법률에 입문을 했다. 그는 열정적으로 법학 서적을 탐독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많은 의뢰인들의 소송을 맡아서 대리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승소를 위한 방법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 그는 어떻게 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승소의 방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부흥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러한 법률가 시절의 방법론 추구 습관과 태도가 여전히 그의 부흥론에도 녹아있게 되어, 결국 방법론적 부흥론을 갖게 되었다. 그의 '법률가 정신(legal mind)'은 그의 부흥신학 속에서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주제어 : 찰스 피니, 제2차 대부흥운동, 부흥론, 법학, 부흥 방법**